

'여수형 심심여수 보건복지 플랫폼' 업무 협약

여수시, 8개 수행기관과 업무협약

"통합된 서비스로 시민행복지수 ↑"

여수시는 통합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여수형 민관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지난 19일 2021년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사업 수행기관인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사회복지관(쌍봉·소라·문수·미평), 노인복지관(여수, 동여수),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수형, 심심여수 보건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해 복지서비스의 관문 역할, 읍면동과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모델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올해는 11억 6400여만 원을 들여 ▲사례관리(위기가구 발굴, 관리, 서비스 연계), ▲마을복지(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재가복지(맞춤형 영양반찬, 재가서비스), ▲건강지원(병원 치료 동행서비스, 전문의료 지원·연

계) 등을 추진한다. 시범 사업지역을 작년 10개 읍면동에서 27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대상 또한 노인을 포함한 아동, 장애인 등 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지역사회 문제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지역 통합돌봄 기반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 수행기관 8개소에 담당인력 9명을 배치하고, 읍면동 복지와 건강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해 찾아가는 방문건강상담 등도 추진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민·관 협력체계가 자리잡아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여수,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순천창작예술촌 레지던시

입주자가 통합전 개최한다

내달 4일까지 지역공장1945갤러리

순천시가 2020년 순천창작예술촌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한 작가들의 통합 전시회를 2월 4일까지 장전동 복합문화공간 지역공장1945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순천 생태를 주제로, 짧게는 100일 길게는 6개월간 순천에서의 생활과 경험을 작품에 반영시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김미진(조형·설치) 작가는 '달, 풀 그리고 총'이란 주제로 문화의 거리 내 한옥갤러리 기억의집(호남길45)에서 만난 곤충들과의 인연을 도자(陶器) 작업으로 예술적 영감을 풀었던 조형물들을 선보인다.

송신규(회화·설치) 작가는 '떠다니는 유행'이란 주제로 유년시절부터 경험해온 조각된 형태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외부 환경오염으로부터 괴물화 되거나 다르게 변형된 표현을 이야기하며, 사회 통념 아래 주저지 경계를 허물고 모두의 것이 자연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작품을 통해 이야기 한다.

정서연(사진) 작가는 순천출신 작가로 순천에서의 익숙함과 낯섬의 경계 속, 그 무언가에 집중하고, 일상 속에서의 자연들을 바라보며 그 속에 담겨 있는 무수한 생명과 그들의 질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들을 '순천 in 순천'이란 주제로 선보인다.

이호영(사진) 작가는 '신(新)인물'로 단 주제로 '존재'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된 작품 세계관을 보여주며, 보다 직접적인 현실 내부에 펼쳐진 인물의 '사이존재'에 대해 구성하여 감상자가 자기 기억을 불러일으켜 다양한 상상 속에서의 일종의 '기억 놀이'를 체험하기를 바라며 작품을 선보였다.

한상진(회화) 작가의 작업은 떠도는 이름들에 대한 이야기로 '스점 FLITTING, 순천의 풍경 속에서 소요(逍遙)하다'라는 주제로 순천 곳곳을 탐방하며 스치는 풍경과 버려진 사물들을 한지에 드로잉한 작업들을 보여준다.

한편, 순천시 순천창작예술촌 레지던시 사업은 생태특화 예코아트 레지던시로, 생태환경에 대한 예술적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전국공모를 통해 2020년 레지던시 입주작가 5인을 최종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만권경제청, 경상도-하동군-경남큐에스에프(주)와 1554억 원대 투자협약

2023년까지 초저온급속동결 시스템 구축 150명 일자리 창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갑섭)은 경상남도·하동군·경남큐에스에프(주)와 최근 경남도청 대회의실(4층)에서 하동지구 대송일반산업단지 내에 LNG(액화천연가스) 냉열을 활용한 초저온급속동결(QSF : Quick Super Freeze) 시스템 식품공장과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15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양원돈 경남큐에스에프(주) 대표이사 등 기업관계자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윤상기 하동군수,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큐에스에프(주)는 에너지 완전

자립형 초저온 쿨드체인 물류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그린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식품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자 협약은 대송산단 62,712㎡(18,970평) 부지, 1,554억 원을 투자해 LNG(액화천연가스) 냉열을 활용한 초저온급속동결(QSF : Quick Super Freeze) 시스템 식품공장과 물류센터 등 '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며, 냉열을 활용하고 남은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태양광 발전설비와 에너지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하동지구 대송일반산업단지는 면적 1,37㎢(41만평), 사업비 2,767억 원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 중인 산업단지이며, 광양제철의 철강 생산기능과 연관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투자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으로 그린뉴딜 선도 기업으로 친환경 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하동지구에 투자를 결심하신 기업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투자기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행정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군, 산림 미래 이끌 근로자 선발

공정한 면접심사 위한 외부 전문가 초빙 실시

보성군은 2021년 보성 산림을 이끌어 나갈 근로자 선발을 위해 서류 합격자 111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했다.

면접심사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19일부터 20까지 이틀간에 걸쳐 여자와 남자로 구분하여 시간차를 두고 3~4명씩 도착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개인별 손소독과 체온 기록, 코로나19 예방 준수 사항 서약서를 작성하고, 작업도구(장갑, 안전모, 안전

화, 작업도구)를 착용한 후에 전신 소독을 실시하고 심사에 참여했다.

이번 면접 심사에서 여자는 톱과 전지가위 사용능력, 제거된 산물 집제 정리, 비탈면 이동 능력 등을 평가했으며, 남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작업 추진을 위하여 동력 기계톱 사용능력을 심사했다.

공통 사항으로는 안전사고 관련 질의 답변이 있었다.

2021년 산림분야 근로자 선발은 읍

면을 통해 117명이 접수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에 111명을 선발하고 면접심사를 통해 득점 순으로 60명(남자30, 여자30) 가량을 선발할 계획이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25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선발된 산림 근로자는 2월부터 숲 가꾸기, 가로수 관리, 국토공원화, 보성군 중점 시책 추진 사업 현장에 투입돼 전반적인 산림 분야의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보성군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보성·김택영 기자

광양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이렇게 달라진다

광양시는 올해 도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내실 있는 관리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지점 일부를 변경해 운영한다.

주요 변경사항은 친환경 인증비 수수료와 자부담률의 조정이다.

다른 지역보다 높게 형성된 도내 친환경 인증비 수수료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인증비 산정 및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공정

한 가격경쟁과 농가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심사관리비를 공개해 인증비용을 하향 조정한다.

시는 논벼 재배농가의 왕우렁이 지원사업 관련해 겨울철 월동에 따른 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 록된 업체만 왕우렁이를 공급하도록 제한하고, 사업 농가에 대해서도 왕우렁이 월동 방지를 위해 수거, 깊이갈이, 동계작물 재배 등의 의무를 조건으로 지원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